

괌

가보기 좋은 장소

리티디안 포인트: 리티디안 포인트는 괌섬 최북단에 위치한 해변으로 많은 이들이 괌을 찾는 이유로 손꼽는 대표 명소다. 파라다이스를 연상시키는 민트색 바닷물이 방문객을 반겨주고 투명한 바닷물 사이로는 화려한 형형색색의 열대어가 노닌다. 괌섬의 북쪽 석회암 숲 일대는 국립 야생동물 보호구역인데 괌에는 곳곳에 흔히 볼 수 없는 야생 동물과 식물이 많기 때문이다. 리티디안 포인트도 이 보호구역에 속한다. 괌 뚝부기, 마리아나 까마귀, 괌 물총새, 마리아나 과일박쥐, 코코넛 크랩 등 오직 괌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야생 동물들을 보고 싶다면 리티디안 포인트로 가면 된다.

리티디안 해변: 하얀 모래와 투명한 보석색 바닷물, 잔잔한 파도까지 정말 천국같이 완벽했던 곳입니다. 괌 학교 학생들이 와서 캠프도 하고, 몇몇 관광객들은 스노클링도 즐기더라고요. 스노클링을 하게 될 시, 안전 요원이 없어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고 해요! 렌터카를 빌리면 리티디안 포인트 일대를 드라이브하기에도 최적화된 곳입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덕에 리티디안 해변은 개발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풍경과 바다를 보존할 수 있었다. 한동안 가는 길이 비포장도로여서 험난하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에는 도로를 새로 정비해 운전해서 가는 것도 어렵지 않다. 신기한 동물들도 많이 출몰하는 지역인만큼 스노클링 명소로도 인기가 높지만 리티디안 비치는 이안류(해안으로 밀려오던 파도가 갑자기 먼 바다 쪽으로 빠르게 되돌아가는 해류)가 심해서 매년 사망자가 발생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안류 특보가 발행되는 시기에는 해수욕장을 폐쇄한다. 또한 군사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수욕장 이용 시간도 정해져 있다. 따라서 방문 전에 미리 해수욕장 개장 시간을 꼭 확인하도록 하자. 시기가 잘 맞아 해수욕장을 즐길 수 있게 됐다 하더라도 안전을 위해 가능하면 수심이 얕은 곳에서 물놀이하는 것을 추천한다.

앤더스 공군기지: 매트리스 영화에 나오는 그 앤더슨의 이름과 동일합니다. B2 전략 폭격기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괌 정부 종합 청사: 아름답게 지어진 건축물과 그 뒤로 펼쳐진 환상적인 해변을 보기에 좋은 곳입니다. 넓게 펼쳐진 해변과 스페인 시대의 대포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남부로 가는 길에 '서브웨이'라는 샌드위치 가게가 하나 있는데 안에 들어있는 할라피뇨와 피클의 맛이 특히 환상적으로 맛있습니다. 서브웨이 뒤쪽 남부로 이동하다보면 '**셀라 만 전망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야생 강아지와 닭 무리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더 멋진 경치를 원한다면 '**세티만 전망대**'를 찾아가는 것도 추천합니다.

솔레다드 요새: 스페인 점령지 시절에 건축한 요새가 있는 곳으로 광활한 해안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19세기 초 스페인 해적들이 몰려올 때 원주민들이 우마탁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요새로 현재는 괌에 남은 유일한 요새다. 그 당시의 분위기를 느끼게 해 주는 대포 3대가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침입자를 발견해 내기 위해 바다 멀리까지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요새를 지었고 그 덕에 현재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탁 트인 바다와 눈부시게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해 준다. 요새로 들어가는 길도 괌에서 손꼽히는 드라이브 코스다. 솔레다드 요새의 솔레다드는 스페인어로 고독을 의미한다. 바쁜 일정으로 가득 찬 여행 중에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솔레다드 요새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 특히 해 질 녘에 솔레다드 요새에서 바라보는 우마탁 마을과 해변의 일몰은 평화롭기 그지없다. 여행의 목적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기도 하다. 솔레다드 요새 곳곳에 마련된 벤치에 편히 앉아서 숨을 고르며 노을을 감상해 보자. 어느새 자연이 주는 위로에 마음이 따뜻해진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다.

차모로 빌리지 & 야시장: 괌 원주민 차모로족이 현재도 살고 있는 마을인 차모로 빌리지에서는 태평양 섬 원주민들의 삶을 엿볼 수 있다. 벚짚으로 만든 차모로 전통 가옥을 구경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코코넛 잎으로 그릇 만들기 같은 이색 체험활동도 준비되어 있다.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괌의 전통문화와 생활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대표 명소. 매주 수요일 저녁에는 야시장이 열려 원주민 전통 음식을 판매한다. 동남아 여행의 꽃인 야시장을 태평양 섬 괌에서도 즐길 수 있다니! 길거리 음식을 파는 노점부터 원주민 전통 공연까지 시끌벅적한 야시장의 분위기를 즐기고 싶다면 차모로 야시장에 꼭 들러 보자. 꼭 먹어봐야할 추천 음식으로는 돼지 바비큐, 열대과일 셰이크, 망고주스, 해산물 볶음면, 코코넛 회, 나초 등을 추천한다. 주차장은

람람 산: 해저 속 마리아나 해구부터 높이를 재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된다는 람람 산. 산 대부분은 물속에 잠겨있고 해수면 위로는 406미터이니 왕복 한 시간 정도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에 다녀왔다고 자랑할 수 있다. 정상에 오르면 오직 람람산에서만 볼 수 있는 환상적인 오션뷰가 기다리고 있다. 정상뿐 아니라 가는 길도 아름답기로 유명한 괌의 숨겨진 성지이다. 세티만 전망대에 도착해 샛길을 따라 등산하다보면 길을 잃지 않도록 마련된 십자가가 표시들이 등장한다. 그렇게 작은 십자가들을 따라 걷다가 마침내 커다란 십자가가 보이면 그곳이 바로 정상이다. 만들어진 트레킹 코스가 아니기 때문에 수풀이 무성해서 짧은 소매나 반바지보다는 긴 소매 옷을 입고 필요한 물이나 벌레 약 정도는 챙겨가는 것이 좋다.

이나라한 곰바위: 남부 끝자락을 돌아서 동쪽으로 이동하다 보면 이나라한 곰바위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곰의 형상을 한 바위가 있습니다. 사진 찍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여기서 사진을 찍고 '이나라한 천연 수영장'으로 넘어가면 자연이 만들어낸 천연 수영장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개방되어 있어서 수영을 할 수 있는 곳이지만, 혹시 임시 휴업

상태일 때도 있으니 미리 검색을 하거나 광 정부청사에 문의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투몬 비치: 광 여행하면 모두가 떠올릴 만큼 가장 알려진 해변인 투몬 비치. 광을 찾는 관광객 대부분이 주로 머무르는 호텔이 도보 거리에 자리 잡고 있어서 가장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해변이다. 그 외에도 레스토랑과 와인바, T 갤러리아 쇼핑몰 등이 근처에 있어서 쇼핑이나 외식 같은 다른 일정과 함께 방문하기 좋다. 광에서의 첫 날은 투몬 비치에서 신나게 수영하다가 숙소로 돌아가 깨끗하게 샤워하고 다시 나와 투몬 비치 맛집에서 로맨틱한 저녁 식사를 하는 완벽한 하루를 계획해 보자. 게다가 수온이 따뜻하기로 유명한 해변이라 초보자나 어린이도 쉽게 스노쿨링을 하며 태평양의 다양한 물고기들과 산호초를 구경할 수 있다.

건 비치: 건 비치는 아름다운 일몰을 감상하며 해변 모래사장을 산책하기에 최적의 장소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 사용하던 대포가 해변 한구석에 남아있어 건 비치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그런 슬픈 역사를 뒤로하고 현재의 건 비치는 해변 썬베드에 누워 칵테일을 즐기거나 모래사장에서 비치 발리볼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섬 여행이라고 하면 흔히 떠오르는 낭만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곳인 건 비치는 투몬 비치에 비해 사람이 적은 편이라 더 여유있게 물놀이를 즐길 수도 있다. 바닷물이 투명하고 산호가 가까이 있어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고도 산호와 열대어 구경을 할 수 있고 수심이 얕아서 어린이나 초보자가 안전하게 스노쿨링을 할 수 있는 해변으로 유명하다. 건비치 바위산 뒤쪽에 프라이빗 해변이 있다. 대부분 혼자 혹은 둘이 책을 읽거나 쉬러온 현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잔잔한 분위기 속에서 해변을 구경하고 싶으면 추천한다.

타가창 비치: 관광객보다는 현지인들이 더 찾는 숨은 명소, 타가창 비치. 관광객으로 북적이는 유명한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즐긴 다음 한적한 해변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이만한 곳이 없다. 탁 트인 바다 양옆으로 깎아지른 절벽이 장관을 연출하는 타가창 비치는 광의 숨은 일출 맛집이다. 여행지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일출을 보는 로망을 실현시켜줄 바로 그곳. 광에서 잊지 못할 일출의 순간을 경험하고 싶다면 타가창 비치 근처 호텔에 숙소를 잡고 조금 일찍 일어나 일출을 감상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파오 비치: 이파오 비치는 거버너 조셉 플로레스 해변 공원(Gov Joseph Flores Beach Park)과 붙어 있어 초록 잔디와 모래사장이 공존하는 광의 이색 명소다. 강한 태양이 내리쬐는 해변에서 놀다가 지칠 즈음 푸르른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 주는 공원으로 달려가 숲 내음을 맡으며 잠시 휴식해 보자. 공원에는 음악회나 주요 행사를 즐길 수 있는 원형극장이 있고 놀이터도 있어서 가족 여행객이 찾기에 좋다. 특히 저렴한 가격에 대여할 수 있는 셀프 바비큐장은 이파오 비치만의 특징점이다. 물놀이하고 난 후에 저녁 먹으러 이동할 필요 없이 바로 공원에서 바비큐를 구워 먹을 수 있으니 이토록 편리할 수가 없다. 초록 잔디 위에 누워 푸른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 이파오 비치에서는 가능하다.

힐란 비치: 괌 현지인들 사이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치라고 알려진 힐란 비치는 투몬 비치에서 멀지 않은데도 관광객들에게는 덜 알려진 숨은 명소다. 옥색 바닷가와 흰 모래사장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하는 곳이라 사진을 찍으러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그 대신 모래가 꽤 거칠어서 힐란 비치에서는 샌들 대신 얇은 슬리퍼를 신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SNS를 통해 점점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힐란 비치에 바로 인스타그램에서 열풍을 일으킨 버섯모양 암석(Mushroom Rock)이 있기 때문이다. 괌 여행에서 손꼽히는 인스타그램 인생샷 명소, 힐란 비치. 힐란 비치를 따라 산책하며 특이한 모양의 바위도 구경하고 '좋아요' 반응 폭발할 인생샷도 남겨보는 건 어떨까?

T.스텔 뉴먼 방문객 센터: 전쟁과 태평양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볼 만한 박물관도 있다. 일본이 하와이의 진주만을 공격한 후 미국은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여함으로 전쟁을 끝냈다. 괌은 전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었던 섬으로, 태평양 전쟁의 역사를 T. 스틸 뉴먼 방문객 센터에서 더듬어 볼 수 있다. T. 스틸 뉴먼 방문객 센터는 원주민인 차모로족의 전쟁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 괌에서 벌어진 전쟁의 역사를 담고 있다. 전쟁에서 실제로 사용되었던 무기뿐 아니라 군인들이 입었던 군복도 전시되어 있고 한국어를 지원하는 시청각 프로그램도 많다. 규모는 크지 않아 한 시간 정도면 둘러볼 수 있어서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일정 사이에 잠깐 들리기에 편리하다. 야외 활동이 많은 괌 여행인 만큼 한 시간 정도는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는 실내에서 보내는 것도 좋다. T. 스틸 뉴먼 방문객 센터 관람을 마치고 나면 태평양 전쟁 역사공원에 마련된 희생자 추모비와 전시를 더 둘러볼 수 있다. 공원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해서 굳이 방문객 센터를 들르지 않더라도 공원만 찾는 이들도 많다. 운영시간은 매주 화, 목, 토 09:00 AM ~ 04:00 PM (월, 수, 금, 일 휴관)이다. 입장료는 USD 3 이다.

사랑의 절벽: 괌을 찾는 연인들이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로맨틱한 명소 사랑의 절벽. 전망대 위에 올라가면 높이 123미터의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그 앞으로 마치 파란색 물감을 통째로 풀어놓은 듯한 색감의 망망대해가 펼쳐진다. 사랑의 절벽에서는 저 멀리 투몬 비치와 해안 리조트도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먼 곳까지 바라볼 수 있어서 전망대로도 손색없다. 이곳 사랑의 절벽에는 슬프고 아름다운 전설이 있다. 괌이 스페인의 지배를 받던 시절에 스페인 장교가 차모로족의 여인에게 반해 결혼을 강요했는데 이미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던 차모로족 여인은 연인과 함께 달아나 이곳에서 서로의 머리를 묶고 뛰어내렸다고 한다. 사랑의 절벽에는 그때 이 절벽에서 뛰어내리기 전에 서로의 머리를 묶고 있는 두 연인의 동상이 있다. 바로 거대한 차로모 연인의 동상이다. 동상의 옆에는 연인들이 함께 종을 치면 사랑이 이뤄진다는 사랑의 종과 전설 속 장면을 돌판에 재현해 낸 벽화가 자리하고 있다. 죽음의 위협도 갈라놓지 못한 숭고한 사랑이 피어오른 절벽을 찾은 연인들은 사랑의 종을 함께 치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한다.

해보기 좋은 체험

패็คเกจ이브 트래킹: 괌의 숨은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매력적인 스팟이다. 바다 주변에 매력적인 동굴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곳은 스쿠버다이빙을 즐기는 사람들이 자주 찾는다. 괌 현지 가이드와 함께 트래킹을 할 수 있다. 트래킹 길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보이는 다양한 해양 절경을 구경하며, 곳곳에서 인증샷을 찍는 재미가 있다. 가는 길에 펼쳐진 괌차모로 원주민들의 집터와 각종 도구를 볼 수 있는 기회도 있다. 칠흙 같은 어둠 속의 동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맑고 시원한 물에서 수영을 즐기기도 하는 패็คเกจ이브 트래킹 탐험은 숲길을 따라 걷는 루트도 있기 때문에 괌의 아름다운 자연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투어이다.

괌 정글 리버 크루즈: 보트를 타고 괌의 정글을 즐길 수 있다. 생생한 자연 속으로 들어가 마치 괌 현지인이 된 것 같은 색다른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차모르 현지 마을을 경험하고 원주민들이 키우는 동식물 구경을 하며 이색적인 경험할 수 있어서, 보다 색다른 괌 투어를 찾는 사람이라면 꼭 추천한다. 투어 중에 야자잎 공예, 괌의 라테스톤 등을 구경할 수 있으며 현지에서 유명한 점심 BBQ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일정을 소화하면서 개인적으로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없어 매우 편하다.

라테 어드벤처 파크: 차모로 마을이 현재도 원주민이 살고 있는 마을이라면, 라테 어드벤처 파크는 고대 차모로 마을을 그대로 재현시킨 테마 공원이다.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구입하면 패들 보딩, 카약, 서핑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 특히 인기가 많은 정글 리버 크루즈 투어는 나무 보트를 타고 탈로포포 강과 우검 강을 따라 정글을 유람하며 동시에 현지 가이드에게 괌의 역사와 고대 차모르인들의 지혜에 대해 들어볼 수 있다. 리버크루즈 투어가 끝나고 라테 어드벤처 파크에 도착하면 괌 대표 동물인 물소를 타보거나 농장에서 직접 과일을 따서 먹어보는 체험이 준비되어 있다. 평소에 흔히 먹어볼 수 없는 열대 과일도 먹어보고 코코넛 오일 만들기도 도전해 보자. 코코넛 오일과 파우더 만들기 체험이 끝나고 나면 남은 코코넛을 이용해 불을 붙이는 원주민들의 불쇼도 이어진다. 다른 관광지에서는 현지인과 마주칠 일이 많이 없지만 라테 어드벤처 파크에서는 차모로족 현지인들을 직접 알아갈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가보기 좋은 음식점

맥 크라우츠: 독일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으로 현지인들에게 매우 인기가 많은 음식점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알면 좋은점

-하루종일 운전하며 돌아다녔는데도 기름이 많이 소비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콤팩트 렌터 카렌 빌리고 하루 5시간 이상 운전한다고 해도 23불 나왔으니 크게 비싸지 않습니다.

-공항 근처에 '**시에스타 카페**'가 있는데 현지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카페입니다.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는 곳으로 늦게 찾아가기도 좋고, 한국과 비슷하게 빠른 속도로 인터넷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공항에 미리 가서 비행기를 기다리기 싫은 사람들은 한번 방문해보세요.